

사실확인서

성 명 : 김현주

생년월일 : 1998.10.04.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6길 11-6, 403호

연락처 : 010-4329-7412

상기 확인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2월 14일 저녁에 피산 숙소에 유상호와 둘만 남게 되어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고 피곤해져서 저녁을 안 먹겠다고 하였는데, 30분 뒤 다시 전화 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녁을 함께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손 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같이 있자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면서 허벅지 쓰다듬고, 마른 거 아니냐며 잘 먹어야 한다면서 허리를 만졌습니다. 하면 안 되는 짓 해도 되냐고 하면서 볼에 뽀뽀하였습니다.

2월 15일 저녁도 둘만 피산 숙소에 남아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식사 후 차로 근처 교통대학교 둘러보고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대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더 있다 가자고 하였습니다. 허리를 껴안고 제 허벅지에 머리를 대며 쓰다듬어 달라고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허리와 배를 계속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알겠다며 이제 안 만지겠다고 하였습니다.

2월 16일 광교역에 내려주겠다고 같이 타고 가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전날의 사건을 마
무리하고 싶어 같이 타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하여 일언반구도 없
고 만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2월 19일 안성 사무실에서 괴산 현장으로 둘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앞으로 제가 싫어하는 짓은 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눈에 안 보이게 되면 점차 잊히지 않
겠냐고 하면서 저한테 잘 돼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해담카페에서 둘
이 먹게 되었습니다. 둘이 먹을 때 김병조 팀장님이 유상호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
화를 끊고 유상호는 저한테 “김 팀장이 현주 생각 많이 해주네. 내가 현주한테 사심
있는 것 알면 병조가 날 쓰레기로 볼 텐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숙소
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 먹고
있어서 안 마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30분쯤에 술 마시고 저한테 전화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빨리 주무시라고 하고 제가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와서 빨리 주무시라고 하고 다시 끊었습니다.

2월 20일 아침에 저한테 밤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녁에 괴산 현장에
둘만 남게 되어 함께 저녁 먹고 카페 갔다가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 30분쯤에 줄 게 있다며 잠깐 숙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숙소 밖에
설치된 셔터만 열고 방으로 안 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할 얘기가 있다며 들어와
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추려고 하길래 놀라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여
나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이제 그만 가라고 좋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
속 주춤하길래 몇 번 더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돌아갔습니다.

혹여나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2월 27일에 저녁을 먹고 홍성수 부장님

한테 유상호가 저한테 호감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니까 둘만 남아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홍성수 부장님은 알겠다고 신경 써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만 남아있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3월 15일에 둘만 남아 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연가를 쓰라고 하였지만, 연가일수도 많지 않고 그 다음주에도 연가를 써야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현장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몇 주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역으로 가는 길에 제 손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빼고 몇 번 피하였는데 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달리는 차 안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잡아주었습니다.

가끔 둘이 있을 때 연구원에 누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고 본인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수치스러운 마음에 주변에 내색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원 내에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함께 일할 일이 없도록 유상호의 퇴사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4. 03. 29

위 확인자 김현주

